

## 防 災 セ ン タ

防災 센터는 高層이나 深層地下가 있는 大規模 防火對象物에서 火災가 發生했을 경우 피난 유도나 초기 소화등의 初動態勢를 確立함과 동시에 소방대 도착 후는 소방 활동의 中추로서 活用할 수 있는 설비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소화 설비, 경보설비, 피난 설비, 소방 활동상 필요한 시설등의 소방용 설비 등과 공조 설비, 방화 셔터 또는 방화문 등의 건축 설비가 一體가 되어 運用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防災 센터에 관해서 法的으로 明文化된 規定은 없으나 장차 그런 方向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現行法令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소방용 설비등이나 건축설비가 계층별로 개별 규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을 單一化하여 運用함으로써 効果적인 活用을 기함을 目的으로 指導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防災 센터에 관한 일본사찰 편람의 기준을 살펴 보고자 한다.

### 基 準

(1) 防災 센터의 위치 및 구조는 화재 終期까지 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發揮할 수 있어야 한다.

[註] 防災 센터는 피난층인 1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지하 1층 등의 위치로 하고, 타부분에서의 연소의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화재시에 외부까지 안전하고, 유효하게 運用할 수 있어야 한다.

(2) 防災 센터는 消防 活動上 中추로서 運用하는데 충분한 넓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註] 防災 센터는 자위 소방 및 소방대 도착 후의 지휘 본부로서 活用하고 소방 활동의 中추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므로 이들 活動이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넓이가 필요하다. 現在의 指導로서는 대략 50㎡ 以上の 넓이로 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3) 防災 센터는 다음의 설비 기능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地圖式 또는 경계 구역 투영식으로 하고 특별 피난 계단, 방화 구획, 배연 구획, 소방 활동상 필요한 시설등의 위치 및 구획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

[註] 수신기는 단지 화재가 發生한 구역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 구역 부근의 소방 설비나 건축 설비를 명시하여 등으로써 피난 유도나 초기 소화 활동의 신속화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 비상 전화기 및 방송 설비의 제이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을 것.

[註] 화재 상황의 보고 및 피난 또는 소화 활동의 지령 등을 음성으로 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확실하고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고정 소화 설비의 기동이 가능하고 이들 설비의 동작 표시가 된 것.

[註] 防災 센터에서 고정 소화 설비의 기동이 가능한 것 또는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 설비가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배연 설비 (주요한 위치에 있는 방화 덩어를 포함한다.) 의 기동이 가능하고 이들의, 작동이

표시되는 것임 것.

[註] 배연 설비를 유효하게 活用하는 데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서 운전할 필요가 있고 방재 센터가 그 상황 판단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마. 防災 센터와 기계실, 전기실, 수위실 및 엘리베이터室內 또는 접속하는 다른 방화 대상물의 방재 센터 間에 상호 유효하게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註] 대규모 방화 대상물에 있어서는 방재 센터에서 모든 설비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방재상 가장 관계가 깊은 기계실, 전기실 등과의 사이에 인터폰 또는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지하도 등으로 접속되는 다른 방화 대상물의 防災 센터와는 상호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 發火를 表示토록 하거나 직통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바. 피난구 유도등 또는 유도 표지 중 화재의 양상에 따라서 피난 방향이 변경, 명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방재 센터에서도 그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註] 피난 방향의 지시는 화재 장소에서 직접 행하는 것이 마땅직한데 넓은 구역에 대해 별개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때문에 방재 센터에서 곱곱으로 부티의 화재 정보 또는 연기감지기의 작동 상황을 감안하여 피난 계단의 장소 등을 방송하면서 표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4) 防災 센터에는 상시 2명 이상의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

[註] 화재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初動 態勢을 신속히 확립하는 것이며 단시간에 통보, 연락, 지시등 수많은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日本査察便覽, 第3編 第6章, P 3672

